

화재위험 안전진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 84.9%로 나타나 —

(기술관리부 제공)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안전진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중점 방향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설문은 지난 4월 14일 설문서를 우편으로 발송, 5월 4일까지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대상은 특수건물의 중·대형물건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업종별 점유율을 감안하여 총 3천 건을 선정, 이들 물건에 16개 문항의 설문서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현황

3천건 발송에 총 8백42건이 응

답하여('94. 5. 4. 현재) 28.1%의 응답률을 보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발송 건수와 응답 건수, 응답률은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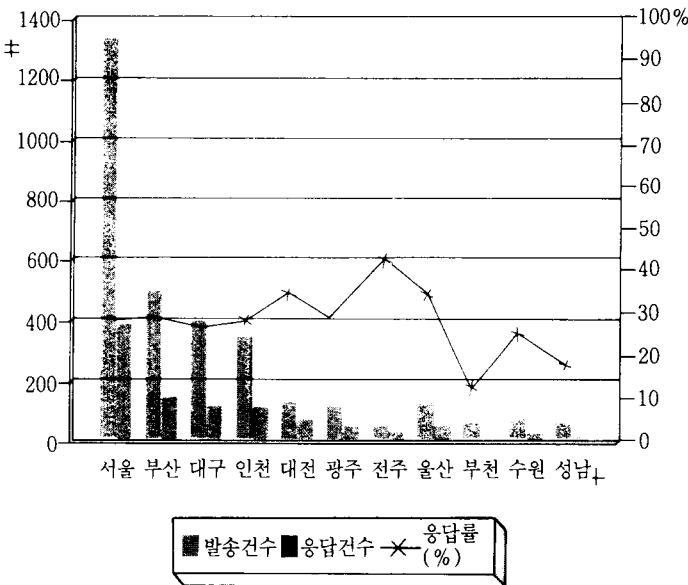
또한 응답자를 직능(업무)별로 분류하면 방화관리자 4백96명(58.9%), 관리 책임자 2백80명(33.3%), 소유주 19명(2.3%), 기타 41명(4.9%), 용역업체 관계자 6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2.9%로 가장 높았고, 부천이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규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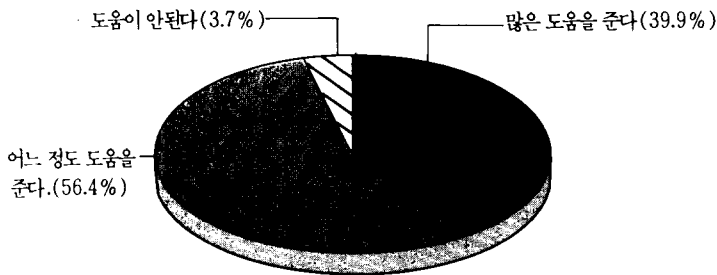
2. 특수건물의 방화관리 방법

방화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의 방재시설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 결과 총 8백 35건의 응답중 59.5%(497건)가 방화관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는 31.3%(261건),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7.5%(63건), 기타 1.7%(14건)으로 집계되어 조사 대상 물건이 중·대형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방화관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화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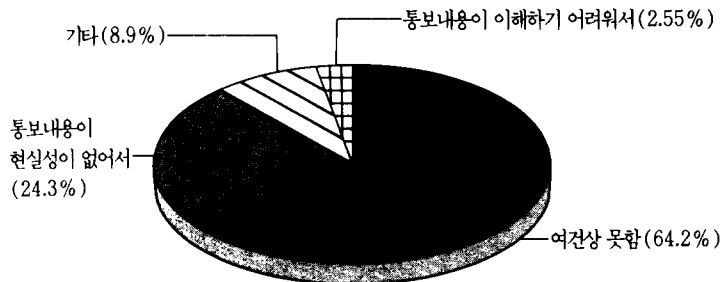
<표1> 설문 응답 현황



구분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울산	부천	수원	성남	계
발송건수	1,315	471	384	333	123	96	35	109	33	55	46	3,000
응답건수	354	137	103	94	45	29	15	38	4	14	9	842
응답률 (%)	26.9	29.1	26.8	28.2	36.6	30.2	42.9	34.9	12.1	25.5	19.6	28.1



〈그림 1〉 협회의 안전진단이 방화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림 2〉 진단 결과에 의해 시설 보안을 못한 이유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협회 안전진단이 건물관리에 도움이 되는가?

협회의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효과 측정을 위하여 '협회의 진단이 방화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도움을 주었다면 어느 분야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준다'가 39.9%(335건),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가 56.4%(473건)로 절대다수인 96.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1건(3.7%)만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53.8%(437건)가 '화재취약 요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37.6%(305건)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 기술적인 도움'을, 6.3%(51건)가 '보험계약 체결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안전진단의 주내용이 '화재 취약 요인 발견' 및 '소방 시설 관리측면'에 편중되어 '보험계약 체결'부분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건물 관계자는 협회의 안전진단 업무를 순수한 방재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진단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진단 결과중 불량 사항을 소방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하는 제도에 대하여 68.3%(569건)가 '건물측에만 통보'하여 자신 시정토록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7%(247건)가 현행과 같이 '소방서에 계속 통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2%(17건)가 '잘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장물건이, 규모

별로는 소형물건에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단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현황

협회 진단 결과에 대한 특수건물의 조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협회가 안전진단후 알려준 결과를 근거로 시설 보안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완한 경우'가 92.8%(774건), '보완한 적이 없는 경우'가 7.2%(60건)로 나타났다. 보완하지 못한 사유는 '여건상(자금·공사곤란 등)의 이유'가 64.4%(130건), '통보내용에 현실성이 없어 보완하지 못한 경우'가 24.3%(49건), '통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보완하지 못한 경우가 2.5%(5건), 기타 8.9%(18건)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보완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2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 위주의 진단외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대책 제시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협회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

협회 안전진단에 대한 특수건물관계자의 신뢰성의 정도에 대하여 8백32명의 응답자 중 84.9%가 '우수하다'고 평가(극히 우수함이 1백51명으로 18.1%, 우수판임이 5백56명으로 (66.8%))하였으며, 0.7%(6명)만이 '뒤떨어진 다', 14.3%(119명)가 '그저 그렇

〈표2〉 협회 점검 내용중 소홀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구분	항목별	소방시설		화재발생위험 (화기, 가스, 위험, 물, 전기시설등)		연소방지 및 피난시설		기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지역 별	서울	21	16.2	67	51.5	34	26.2	8	6.2
	부산	9	16.4	29	52.7	11	20.0	6	10.9
	대구	4	7.4	33	61.1	15	27.8	2	3.7
	인천	3	6.1	30	61.2	11	22.4	5	10.2
	대전	1	4.5	14	63.6	4	18.2	3	13.6
	광주	3	25.0	6	50.0	2	16.7	1	8.3
	전주	1	11.1	2	22.2	5	55.6	1	11.1
	울산	2	18.2	7	63.6	1	9.1	1	9.1
	부천	0	0	2	100	0	0	0	0
	수원	0	0	6	66.7	0	0	3	33.3
업 종 별	공장	13	8.3	87	55.8	41	26.3	15	9.6
	6층이상	17	17.5	47	48.5	25	25.8	8	8.2
	판매시설	8	26.7	14	46.7	4	13.3	4	13.3
	기타업종	7	9.6	48	65.8	15	20.5	3	4.1
중 요 도	S,Y급	15	13.9	61	56.5	20	18.5	12	11.1
	A급	18	10.4	91	52.6	49	28.3	15	8.7
	B급	12	16.0	44	58.7	16	21.3	3	4.0

다'라고 응답하여 협회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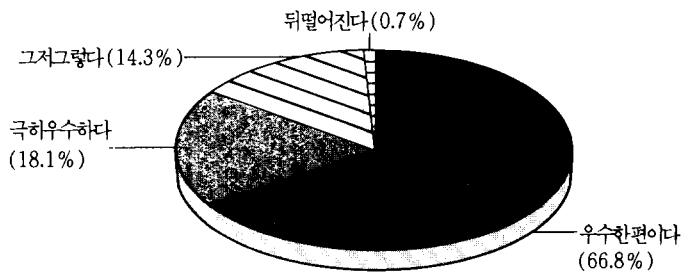
7. 현행 안전진단의 횟수 및 소요 시간

연 1회 실시하는 진단 횟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72.1% (605명)가 '현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9%(125명)가 '2년에 1회'를 11.7%(98명)가 '연 2회'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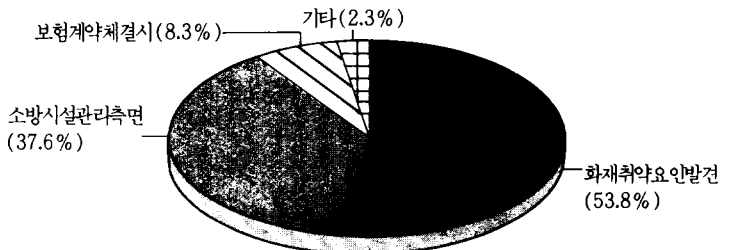
또한 진단 소요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8.2%(737건)가 '적당하다', '현재의 진단시간이 짧다' 7.5%(63명), '길다'고 응답한 수는 4.3%(36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진단 횟수 및 소요 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협회 진단직원의 진단시 태도

진단시 협회직원의 태도에 대한 특수건물 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질



〈그림4〉 협회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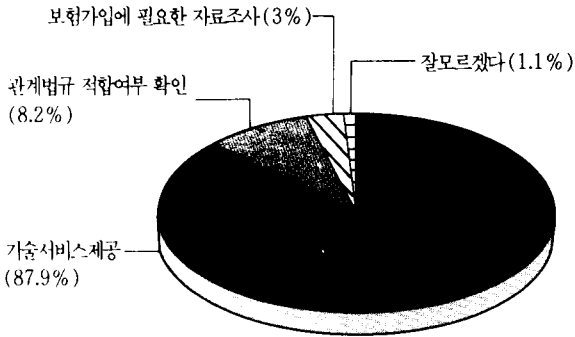


〈그림5〉 협회 점검이 어느 분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에 대해 83.1%(695명)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1.6%(13명), '그저 그렇다' 15.3%(128명)로 나타났다. 협회 직원의 진단시 태도가 전반적으로 '친절하다'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불친절'과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16.9%(141명)에 대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협회 안전진단 내용중 소홀한 분야

'협회의 안전진단 내용중 소홀하다고 느낀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 8백42건중 3백57건(42.4%)이 응답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55.2%(197건)가 '화재발생 위험분야'를 지적하였으며, 23.8%(85건)가 '연소 확대 방지 및 피난 시설'을, 12.6%(45건)가 소방시설을, 기타 8.4%(30건)로 집계되었다. 이는 특수



〈그림6〉 협회 안전진단의 방향은

건물 관계자가 화재 발생 원인에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분야에 대한 특수건물 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의 계층화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진단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협회 안전진단의 방향

협회 안전진단이 중심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8백26건의 응답중 87.9%(726건)가 '인명 및 재산보호 차원에서 기술적 서비스 제공', 8.2%(68건)가 '관계법규에 적합여부 확인'을, 3%(25건)가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료 조사', '잘모르겠다'가 1.1%(9건)로 나타나 특수건물 관계자는 협회 진단이 순수방재 활동으로 지향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인지도

협회의 진단업무중 보험관리 업무에 대한 특수건물 관계자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위한 자료가 협회의 안전진단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일부 알고 있다'가 50.7%(424건), '잘 알고 있다'가 42.5%(355건), '모르고 있다'가 6.8%(57건)로 집계되었다. '소화설비할인'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 알고 있다'가 41.6%(348건), '잘 알고 있다'가 37.9%(317건), '모른다'도 20.5%(172건)나 나타났다. 이는 보험에 관련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보험측면에서 진단 결과의 활용도를 소유주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기타 건의 사항 등

기타 안전진단과 관련한 개선 사항 등 의견을 묻는 항목에 1백20건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규에 의한 지적 사항 통보 위주의 진단보다는 각 물건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기술 서비스 차원의 진단(33건)

(2) 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재 관련 자료의 요청(21건)

(3) 진단 결과 통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근거 명시(14건)

(4)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중 보수가 곤란한 사항은 유보 조치(12건)

(5) 방재기술교육, 방재시험연구소 견학 요청(12건)

(6) 보다 철저한 안전진단(6건)

(7) 진단기기 활용 강화(4건)◎

